

佛敎 純正哲學(一)

哲學博士 白性郁

緒言

이 論文은 나의 獨逸文으로 만들었던 博士 論文 中에서 大略을 抄譯하여 우리 同胞 中이 方面에 對하여 研究하시는 이들의게 들이나이다. 그러나 抄譯當時에 업지 못할 躊躇는 자못 우리 語學 中에 哲學 上 術語를 完全히 定하지 못한 잇새며 또 佛敎學 上 術語가 아직 우리 同胞에게 普及되지 못함에서만은 辛苦를 하였습니다.



또 讀者의 便宜를 보아서 一般 歐洲文의 術語를 略하였으나 不可不업지 못할 梵文 卽 『산스크리트』는 括弧內에 書하였습니다. 同時에 우리에게 梵文字母가 업슴으로 因하여 우리 字母로 取音하여야쓰는 同時에 中國人의 譯에適當한 것은 亦是쌔이지 안이 하였습니다. 또 佛敎 用語 中 普通으로 理解할만한 것은 可能한대로 引用하고자 하였습니다. 其外에 亦是 著者 스스로가 使宜 上 他字를 利用하였슴도 업지 아니합니다. 또 本文 中 佛說 引證은 梵文이나 歐文 中에서 抄出한 것임으로 만든 것이 中國文 卽 漢文經典에 語句와 달오다 할지는 몰으나 意味는 相似하다 생각합니다. 또 參考書의 名目도 除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讀者 中 請求하시는 이가 잇다면 記送의 勞를 앓기지 아니하겠슴니다. 此等 參考書는 略 梵文, 英文, 佛文, 獨逸文이요, 冊數는 略 三十餘種에 達합니다. 其外에 漢文도 업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쓴 原因은 一九二四年 二月에 이곳 大學哲學 敎授 『마이여』氏로부터 論題 『佛敎純正哲學』이라는 것을 어더 가지고 同五月 二日에 完成하여 同大學 哲學科에 提出하여 博士論文이라는 認證을 어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博士나 하고저하는 好奇心에서 從事하였다는 것보다 이곳 歐洲人은 言必稱 못기를 『佛敎는 어더함닛가?』 『東方哲學도 亦是 希臘學者들노 土臺를 삼는 思想임닛가?』 이와 가튼 問辭는 卒地에 對答하기가 難處함으로 著者 스스로 가늠김도 原因이였고 또 우리나라가 近代에 이 方面에 對하여 生疎하기가 歐洲보다 甚하여 亦佛敎가 무엇인지 아지 못하는 것은 他人의게

對하여 羞恥千萬임을 아올너 늦기였습니다.



이 世界 사람들은 佛教가 哲學 이거니 합니다. 그러나 今日에 잇는 結果를 보면 東西洋을 勿論하고 萬種의 著述은 오즉 傳記的, 說明的, 普遍的, 概念的에 止하였다. 佛教라면 그의 範圍가 廣大하여 적어도 四五種의 部類的 研究를 要求하는데 더욱 佛教哲學에 對하여 專門的 著述이 缺하였슴은 著者로 하여금 淺識임에 不拘하고 勇氣를 내이여서 이 任에 當하게 되었슴니다. 그러나 著者가튼 拙才가 이 任을 當케 됨을 恨하는 同時에 이로써 日後 此方面 英材의 研究를 刺戟식한다면 그래서 이 方面에 玄奧가 尤히 闡明되야 우리 人生의게 裨益을 준다면 하는 希望은 著者가 이 論文을 抄하든 當時에 唯一한 늦김이 잇슴니다.

南獨逸썰쓰름市

大學 哲學科 研究室에서

一. 序論

第一章 歷史的 概觀과 佛教의 純正哲學

耶蘇 紀元前 百年頃에 印度에서 反『부라흐마』(婆羅門)의 運動은 그들의 社會制度가 不平等함으로 因하여서 엄지 못하게 되었다. 이 問題는 무슨 當時 學者들 間에만 限한 것이 아니요, 全印度人을 通하여 研究하고 解釋하게만 되었다. 또 婆羅門 自身들도 그들의 社會制度가 人類의 幸福을 意味한다는 것보다 不自然이고 全人類를 通하여 不幸임을 잘 覺悟하였었다. 普通 文明族의 엄지 못할 弱點인 『古習慣의 株守』는 그들로 하여금 이 問題를 解釋하기에 不少한 障礙를 주었다. 만은 當時 學者나 哲人들은 各々 그들의 方式과 周圍에서 研究에 從事하였었다.

그들 中 가장 有名한 哲人으로 말하면 『마하비라』(자인이쓰創設者)와 또 가우다마 『시아기야문』(釋迦牟尼)이다. 이 두 哲人들은 그들의 主義를 平等이라는 題下에 두고 社會 改造에 從事하였다. 釋迦牟尼는 말도 上類階級이 쓰는 梵語(산스크리트)代로 下類階級이 쓰는 『프라크리트』를 썼다. 또 尊榮의 王子이고 王太子인 位를 밟이고 托鉢僧이 되었다. 그는 神이나 人生이나 禽獸를 差別치 아니하였다. 그것은 『一切 衆生이 皆有佛性』이라는 理由下에서 그러나 六趣의 衆生이 階級을 싸라서 다른지라 그 中人趣가 第一 容易하게 宇宙 問題를 研究할 수 잇슴으로 人趣가 價値를 占한다 하였다. 이와 가튼 意味에서 『衆生』(부루수아)이라는 한 말은 神이나 人生이 禽獸를 通稱한 名詞이다.



釋迦牟尼에 長技되는 觀察은 當時에 누구보다 哲學的 見地가 詳細하고 周密하였다. 그래서 일어난 觀察로 이 宇宙 全般을 說明하였고 또 不徹底한 婆寒門들을 罪惡에서 解放하는 同時에 全印度人으로 하여금 樂園에 있게 하였다.

우리는 자조 釋迦牟尼 經文 中에서 禽獸의 人格化한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佛敎는 神秘갯다』或은 『佛敎는 哲學이갯다』斷案을 맞기지 아니한다. 이 斷案은 적어도 觀察이 不充分한 대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不充分한 이 斷案은 觀念 上으로 보아서 참으로 極端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解釋하지 못할 만치 되어 보인다. 그러나 좀 잘 生意하여 觀察을 다시하면 實相은 『佛敎가 哲學이갯다』하리라. 그럼으로 『요가』(瑜伽)哲學과 實習은 釋迦牟尼에게 利益을 주지 못하였고 또 그가 생각하기를 『요가』哲學을 가지고는 宇宙의 眞理나 惡의 根本을 發見할 수 없다 하였다. 또 亦是 『상기야』哲學도 그는 내여 바리었다. 그것에 理由는 『상기야』哲學은 哲學的 觀念도 업슬 뿐만 아니라 또한 神秘도 안이요, 오즉 暗黑한 무엇이라 하였다. 이것을 反對한 釋迦牟尼는 오즉 自己의 精神을 모든 暗黑한 無明에서 解放하여 가지고 最終에는 모든 輪廻를 自己心 中에서 보도록하고 또 생각하기를 『발근 佛性은 이 宇宙를 通徹하였다』하였다.



그러면 엇지하여서 사람들은 『佛敎는 神秘갯다』하나?한 宗教 創立者에게 잇서서는 참으로 避하기 어려운 것은 말하자면 過渡期에 儀式은 적어도 古來에 잇던 宗教들과 싸호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例하면 古代의 基督教가 一神敎라는 名稱 下에서 傳來되든 多神敎들과 싸혼 것과 同樣으로 自己들의 利益대로 사람들은 他敎의 神을 自己敎의 神에 下輩도 만들고 또는 他敎의 神에 價値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맞찬가지로 釋尊도 古代 『베』敎의 神들이나 또는 婆羅門敎의 神을 아무 能力업시 만들어서 六趣 中인 天趣에 屬하여 발이고 同時에 自己 弟子들(승가)의 守護神을 만들었다. 例하면 『인드라』(帝釋天王)는 『베다』敎의 神 中 最高 神이고 또 그의 反對 神되는 『아수라』(阿修羅) 또 그의 不及 神되는 『간달바』(乾闥婆)라던지 또 『브라흐마』(大梵天王)는 婆羅敎의 最高 神이다. 其外에 古代 『베다』敎의 神들 『나가』(龍) 『가루차』(金翅鳥) 『마호라가』(蛇王) 긴나라(半獸半人)가튼 것은 이에 屬할 것이다.



이와 가튼 神들은 무슨 다만 守護 神으로만 잇는 것이 아니라 同時에 釋迦牟尼의 法門을 듯고 그들에 조치 못한 것(베다敎나 婆羅門敎에서 밋든 것)을

곳치고 이 宇宙 衆生을 救濟하는 同勞者가 되였기에 釋迦牟尼가 그의 弟子들과 法會를 開하면 그들도 亦是 聽法衆이 된 것이다. 또 사람이 容易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東亞細亞 佛教 寺院에 갈 것 가트면 들어가는 正門에 以上 가튼 神像을 세워 놓는 것이다. 적어도 中國이나 朝鮮 또는 日本에 『마치 쉬샤神(穢積金剛힌두이즘의 最高神)으로 西藏佛教 寺院에 세운 것이나 相似하다. 이에서 問題를 돌리여서 純正哲學이 佛教 中에 에如何한 位置를 點하는가? 研究할 것이다. 이 純正哲學的 觀念은 釋迦尊者에게서 起因된 것이요, 또 그가 創造者이다. 그 다음에 만든 補充은 그의 後進者들로 말미아마 大成된 것이다. 例하면 『아쓰싸소수와(馬鳴)』 『라가줄으나』(龍樹) 등 印度哲人과 賢首清涼圭峯 등 中國學者와 元曉 涵虛 등 우리哲人으로 因하여 모든 佛敎學派들은 純正哲學을 『아비담마』라는 題下에서 잘 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宗教的 問題만 解釋하는 것이 아니라 亦是 全 宇宙를 通한 眞理를 研究하는 것이다.



創立者 釋迦尊者 瞿曇 그가 生存하였을 當時에 그의 弟子들과 이것을 研究하는 中 特히 『보시샷트싸』 마하샷트싸(菩薩摩訶薩)들과 研究하였다. 그의 弟子들 中에서 사람들은 大略 三段으로 分한다. 一, 『알하트』(阿羅漢)四諦法을 修하여 『닐싸나(涅槃)』를 證하는 이들 二, 『프라티에카부다』(辟支弗) 이들은 十二因緣法을 修하여 『닐싸나』를 證하고 三, 『보다샷트싸(菩提薩陞)』三明六德으로 全 宇宙의 眞理를 證하고 衆生濟度を 準備하고자 『닐싸나』를 證한다. 이와 가튼 三級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三乘이라한다. 말하자면 小乘(힌나야나) 中乘(마디마야나) 大乘(마하야나) 이와 갖흔 法門을 두고 이 三界의 火宅을 出離한다는 意味에서 乘(야나)이라 하였다.

얼마 뒤에 『아소짜』王時代に 南



方佛敎派(錫蘭島)에서 特別히 小乘及 中乘法을 『파리』말노從事하였으므로 그를 일홈하여 『히나야나』(小乘)라 하고 同時 北方敎派들은 特別히 大乘을 梵文으로 從事하였으므로 그를 일홈하여 『마하야나』(大乘)이라 하였다. 小乘法은 特히 南方에 傳流되야 『빌면,시암』(暹羅) 等地에 『시암』佛敎는 마치 羅馬法王모양으로 佛敎主權을 左右한다 하고 또 王 스스로가 佛敎徒이다. 『시암』王은 만든 佛敎經典을 英文으로 譯出하여 宣傳에 從事하였다. (例하면 著者 스스로 가진 冊中에도 그것이 있다. 그것은 英國 『옥쓰포드』大學에서 印刷하였다.) 또 大乘法은 特히 北方에 두 가지 意味로 같이였다. 一, 西藏佛敎 特別히 神秘的 意味로 解釋되고 二, 東亞細亞佛敎, 特히 哲學적으로 解釋된

것이다. 그래서 現今 東亞細亞佛教는 哲學的 地盤을 가진 宗教이다.

그러면 『아비달마』는 무슨 意味일가. 『아비』는 『뒤』고 쏘는 『우라고 譯할 수 있고 쏘 『달마라』는 이곳』에서만 『法門』이라譯하리라 한다. 그러면 『아비달마』을 가지고 釋尊의 法門을 잘 알아듯게 한다는 意味이겠다.

第二章 觀念의 方式

佛教 純正哲學은 全 宇宙 眞理를 研究하는 學問이다. 말하자면 『輪廻의 原理』『善男子야 大海는 즉 한 맛이 잇슬 뿐이다 卽 旣 善男子야 이 法門은 오즉 한 맛 卽 宇宙의 眞理일 것이다』이것은 달은 것이 안이다. 말하자면 確實한 眞理 下에서 無意味한 生活을 한다는 것보다 卽 意味잇는 것 價値잇는 生活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서 만드시 生活의 眞理를 차져야 할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愛命이 全 宇宙를 建設한 理由가 될 것이다. 이와 갓흔 門題는 釋迦牟尼로 하야금 六年의 辛苦로 方法을 研究하게 하였다. 그래서 最終에는 『부다』(佛性)가 全 宇宙의 原理갓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만드시 이 宇宙의 眞理 下에서 主觀과 對象을 分하지 안이하면 안이 되엿섯다. 무엇보다 論理的 觀念으로 보아서 업지 못할만큼 必要를 늦기였다. 다시 말하면 宇宙 眞理 理의 主觀은 『부다』요, 對象은 『달마』이다. 그러나 宇宙 眞理는 하나이지 둘이 안이다. 쏘 이 羅萬像으로 보아서 하나만 이라고도 斷定할 수 업다. 이에서 釋尊은 말하기를 『善男子야 標目之指를 보지말고 곳 달을 보라. 宇宙의 眞理는 부다(佛陀)도 안이요, 달마(達摩)도 안이다. 이 眞理는 무엇이랴 말할 수 업다. 如來의 法門은 모든 衆生을 사랑함에서 例를 들미요, 決코 眞理 그 自體를 이약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갓튼 純正哲學은 무슨 理論으로만 잇는 것이 안이라 直接 實習을 하는 것은 佛教 哲人들의 업지 못할 特點이다. 그들은 적어도 冥想으로 그들이 차진 眞理를 스스로가 自證하고야 만다.



佛教 純正哲學의 觀念은 相對的 見地에 잇다. 그래서 이 宇宙는 相對的 觀念 以外에 다시 잇지 못하고 쏘 업다 한다. 例하면 全 人類는 本能으로나 무엇으로나 平等을 조아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絶對 眞理인야하면 되지 못할 것이다. 엇지하야 그런야하면 他面에서 사람들은 亦是 不平等을 恨한다. 그러면 絶對의 平等은 理論 뿐이다. 實現은 不可能이다. 그릇타고 平等에 可能性이 아주 업는가하면 그것은 누구나 안이라 할이라 만일 잇다면 暫時 쏘는 理論 上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普通 말하기를 『理論은 灰色이다』한다. 그러면 엇지 하야서 平等이라는 말이 생기었나 만일 實現이 不可能하다면? 平等은 오즉 不平等이 잇는 곳에서 생기는 相對的 觀念이다. 사람은 이와 갓

치도 말할 수 있다. 『平等은 不平等의 母이요, 不平等은 平等의 母이다』이와
가튼 觀念에서 佛教哲學者들은 眞理를 참된 冥想으로 平等과 不平等 間에서
求한다. 그의 方式은

一, 『平等은 平等이다』적어도 理論에서 或은 人類的 本能에서

二, 『平等은 平等이 아니다』不平等이 엮는 곳에는 平等이 잇슬 수 없다.

이것은 實現 上으로 보아서

三, 『平等은 平等도 안이요, 不平等도 안이다』이 斷案은 解釋인 同時에 尙
眞理이다. 만일 사람이 平等을 實現하자면 平等 卽 不平等, 不平等 卽 平等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타고 平等과 不平等에 中間을 意味한 것은 아니다.
(만일 中間이라면 中國哲學이요, 佛教哲學이 되지 못한다.)그것은 理由와 原因이
한곳에 一定된다면 結果는 그 한곳이라는 意味보다 좁아진다는 意味이
다. 그래서 日常 自由스럽게 平等과 不平等間에 往來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
보다 事實이 證明한다.



사람이 人類的 歷史를 注意하여 볼 것 같으면 사람의 本能은 社會生活을
始作한 以上에는 平等만 가지고는 到底히 社會秩序를 維持할 수 없다. 그럼
으로 이에서 不平等이 實行된다. 例하면 領袖部下 사람의 本能은 決코 不平
等만 가지고 滿足할 수 없다. 그래 이 點에서 平等 不平等은 極端으로 가고
만다. 적어도 가티 同列로 平等線으로 가야 할 것을! 이에 對한 理由는 普通
사람의 일이 原因은 日常 自由이지만은 오는 結果는 限定이 잇는 緣故이다.
例하면 이에 한 著述家가 作品을 쓴다하자. 그의 쓰기 前에는 作品의 價値가
X이다. 엑쓰는 百萬圓 價値도 可요, 一圓의 價値도 可하다 할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作品을 만든 後에는 그 著述家は 그가 만든 作品의 價値 卽 一定
한 것 A이면 A, B이면 B일 것이다. 이 A나 B는 確定한 數字가 잇지 決코 엑
쓰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原因 當時에 $A=X$ 가 結果 當時에 $A=B$ 가 된
다. 이 B는 確定數이지 決코 엑쓰와 갓튼 位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갓튼 意
味에서 모든 무엇이나 證明할 수 있다. 例하면 我, 無我, 善, 惡, 主觀 及 對
象, 憎 及 愛, 眞 及 僞, 資主義 及 共產主義, 帝政 及 民主, 生死 及 涅槃,
菩提 及 煩惱, 罪 及 無罪, 理論 及 實現 모든 相對的 觀念되는 것들 이와
갓튼 問題들이 極端으로 가기 때문에 이 森羅萬像도 우리의게 極端으로 보
이게 되었다.



아! 얼마나 많은 悲劇들은 우리 人類歷史 上에 이와 갓튼 意味에서 現出되
었슬가? 『모든 極端들은 危險이다』佛教哲人들은 이와 갓튼 생각을 暫時라도

있지 안이한다. 그래서 이러한 詩句는 恒茶飯으로 使用한다. 『佛祖位中危不住
住야 夜來依舊宿蘆花라』

이 斷案(平等은 平等도 안이요, 不平等도 안이다.)은 極端에 防禦線이다.

그럼으로 佛教哲人들의 『닐싸나』는 이러하다. 『善男子야 菩薩이 涅槃에
있는 것은 彼岸도 안이요, 此岸도 안이다. 또한 中流도 안이다. 菩薩은 不住中
流하야 廣濟衆生한다. 菩薩의 涅槃은 一切 衆生을 濟度하는 準備이다. 그럼
으로 菩薩이 涅槃에 있는 쎄에 自己 스스로가 涅槃에 있거니 생각지 안이한
다. 또 涅槃에 있지 안타고 생각지도 안이한다. 마치 蓮花가 더러운 물에 있
스면서 日常精한 것과 相似하다.』佛教哲人들의 純正哲學은 이러하다. 『覺來觀
世間하니 猶如夢中事』이라 한다.



이곳에서 사람은足히 『佛教 純正哲學이 무엇이겟다』 짐작하리라 한다. 卽
말할 수 업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全 宇宙의 眞理를 알 수 잇는 것이 것은
적어도 自然的일지언정 超自然的이 안이다. 적어도 우리 日用 行事 中에서
볼 수 잇고 들을 수 잇는 것이다. 이에 切實한 例를 들면 哲人 元曉가 義湘
과 談話하던 것이 잇다.

의상 『神通이 무엇이요?』

元曉가 『배곱흐면 밥 먹고 목 말으면 물 마시는것!』

의상 『어디서 自家의 田地를 차즐고?』

元曉 『너의 田地는 釋迦未到地거나 或은 百尺竿頭에 進一步』